

2026년 4월 6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미국 고용: 강한 헤드라인, 약해지는 고용의 질

3월 미국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17.8만 건 증가하며 전월(-13.3만 건)의 부진에서 벗어나 시장 예상(6.5만 건)을 크게 상회했다. 헬스케어, 건설, 운송 및 창고업 업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며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헬스케어 부문은 7.6만 건 증가하며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이는 파업 종료에 따른 병·의원 인력 복귀 효과가 반영된 영향이 컸다. 건설업 고용은 2.6만 건 증가했으며, 운송 및 창고업 역시 2.1만 건 증가하며 택배·물류 관련 고용이 증가를 주도했다. 다만 운송·창고업은 2025년 초 고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인 회복 국면으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른다.

고용 흐름을 월별로 보면, 1월 신규고용은 16만 건, 2월은 -13.3만 건으로 감소한 이후 3월에는 17.8만 건 증가하며 반등했다. 이를 반영한 최근 3개월 평균 고용 증가 폭은 약 6.8만 건에 그쳐,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실업률은 4.3%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는 경제활동참여율 하락에 일부 기인한 측면이 있다. 다만 장기 실업자 수는 180만 명 수준으로 전월과 큰 변화는 없었으나, 전년 대비 약 32만 명 증가하며 점진적인 고용 질 악화를 시사한다. 특히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노동시장 회복의 질적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다.

임금 측면에서는 시간당 평균임금이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치며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 역시 3.5%(2월 3.8%) 수준으로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생산직 및 비관리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전반적인 임금 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서비스 물가의 핵심 변수인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월 고용은 양적 견조함과 질적 냉각이 공존하는 국면으로 요약된다.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은 무리한 추가 긴축보다는 정책금리 동결을 유지하며 시차 효과를 점검하는 대응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